

영동 지역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연구

박정근 * 고주환 **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대학생활 적응의 범위와 요소
 - 2.2 지역생활과 대학생활 적응
 - 2.3 베트남 유학생 적응 관련 논의
3.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3.1 연구 개괄
 - 3.2 설문 결과 분석
 - 3.3 심층 인터뷰 분석
4. 결론 및 제언

*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논의는 영동지역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현재와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 의 개선점 탐색에 목적이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 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동 지역 유학생들의 대 학 및 지역생활 적응 문제를 확인, 개선점 제안을 위해 설문조사와 심 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주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장벽, 문화 적 차이에서 비롯된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였다. 유학생들은 경제적 지원 확대,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상담 지원 강화 등의 개선 책을 원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는 높았으나 생활 편의성 부족과 취업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도 필요하 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제어 : 영동지역, 베트남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 및 지역적 적응

1. 서론

본고는 영동 지역 베트남 유학생¹⁾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의 현재와 그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유학생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내에 유학생은 약 1만 6천 명에서 15년이 지난 2019년에 약 16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코로나(COVID-19) 시기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16만 7천 명에서 2023년 18만 2천 명으로 1년 사이에 약 1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공표하였다.²⁾ 이에 더불어 각 대학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계획과 맞물려 국내로 유학을 오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 현상은 영동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강릉시 기준 3,496명의 외국인 중 D-2(학위과정) 및 D-4(어학연수과정) 비자인 외국인은 1,093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³⁾ 더욱이 지방 대학에서는 대학의 중·장기 계획으로 유학생 유치를 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방에서의 유학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⁴⁾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생활 관리 주체로서 학교, 생활의 근거지로서 지역사회, 한국 생활의 주체로서 유학생의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국에서 생활할 유학생의 보다 빠른 ‘적응’은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응’을 위한 3주체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1) 본고에서 유학생의 범주는 어학연수과정 및 학위과정 학생으로 한정한다.

2) 교육부 보도자료(2024. 2. 8.), 「교육화 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

3) 법무부(2024),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4년 3월 말 기준」, 검색일: 2024.06.20.,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

4) 이민경(2012)은 지방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유학생은 타국에서 환경, 문화, 생활, 언어 등의 다양한 적응을 해야 한다. 그중 대학은 유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곳이며, 문화를 학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유학생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 중, 문정현 외(2017)의 논의에서는 대학생화에 부적응과 소속감 부재의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의 대학생화 적응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응과 관련한 문제 요소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유학생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적응 또한 유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인이 유학을 와서 가장 먼저 접하고 생활하는 곳은 유학을 온 지역일 것이다. 박은경(2011)은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문제없이 적응을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부적응을 한다면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유학생의 생활 적응 및 관리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일 것이다.

유학생의 대학과 지역에서의 적응은 그들의 유학생들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중도이탈⁵⁾과 불법체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처음 와서 생활하는 대학과 거주하게 되는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⁶⁾

이에 본 연구는 지방대학 중에서 영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대학 및 지역생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를 위하여 영동지역 유학생의 대학 및 지역 생활에서의 실태

-
- 5)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 기관의 중도이탈자 수는 7,079명(7.1%)이다.
- 6) 유학생 중도이탈과 관련한 문정현 외(2017)의 논의는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유학생이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것을 지적, 대학에서 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을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를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유학생이 대학 및 지역에서 겪고 있는 생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과 대학이 유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대학생활 적응의 범위와 요소를 다룬 논의에서 김미영 외(2018)는 대학생활 적응을 대학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학업이나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진우 외(2017)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교 학업성취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대학교 환경 안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태도적 측면을 함께 포함한 적응의 요소라고 제시한다.

두 논의를 정리하면 대학생활 적응이란 단순 학업의 성취나 수행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필자는 학습자가 생활하는 지역 또한 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의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역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공간이며 학습자가 유학을 온 지역이기에 해당 지역에서의 적응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단순히 대학에서의 적응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대학 및 지역 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의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적응 관련 연구 중 하나인 Baker &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대학생활개발척도(SACQ)는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은 유학생의 학업적 성취와 학습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 사회적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개인적 적응 능력,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활 도중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 능력, 대학환경 적응은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만족도 등을 의미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를 활용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실태 및 관계를 파악한 김귀성·황지인(2009), SACQ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학생활 적응척도인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를 개발, 적용한 윤지원·김상욱(2017), SACQ의 범주인 학업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에서 추가로 문화적인 면을 추가하여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김미영 외(2018) 등이 있다. 각 논의의 방향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생활적응척도를 다룬 논의는 Baker & Siryk(1984)의 연구가 매우 주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필자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논의에서 차용하되, 지역을 포함한 범주를 추가로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기본적인 형식은 Baker & Siryk(1984)와 동일하나, 영동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지역적 요인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다.⁷⁾ 이에 4개의 범주 중 대학환경 적응 범주에 지역생활 적응을 포함하여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2.2 지역생활과 대학생활 적응

지역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나눈 지리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지역적 관점에서의 대학생활의 적응은 유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이 위치한 특정 지역의 문화, 사회적 환경,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적응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곧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유학생의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 박정근(2021)은 유학생의 대부분은 언어를 배우는 국가에

7) 대학생활 적응에서 지역적 요소의 필요성은 후술할 2.2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8) 이민정(2012), 김도혜(2018), 문세진 외(2020), 구지은 외(2022) 등.

처음 오게 되어 해당 국가와 지역을 처음 접하고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습득하는 문화 또한 그 지역문화라고 보았다. 또한 유학생에게는 제2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제2 문화 습득은 제2 언어 습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학습자가 대학생활을 하는 곳 또한 유학생이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속 대학의 생활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대학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적응 또한 수반된다면 유학생은 생활적 측면에서 문화적 요소가 배경지식이 되어 지역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적응은 생활의 안정을 유도,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지역민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생활의 적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3 베트남 유학생 적응 관련 논의

현재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역 대학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 어학연수과정과 대학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⁹⁾ 현재 영동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강릉시를 예로 들면 현재 강릉시의 외국인인 총 3,379명으로 그중 베트남인은 1,460명이다. 강릉시에 등록된 외국인 국적 중 가장 많다. 또한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의 수는 1,093명인 사실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강릉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구지은 외(2022)는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는 지역 대학 내부의 국제

9) 구지은 외(2022).

10) 법무부 자료에서는 강릉시 등록외국인 현황을 ‘지역·국적별’, ‘지역·체류자격별’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는 정확한 베트남 유학생의 인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인구수에서 베트남인의 현황과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볼 때 베트남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어려움과 이탈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도시 지역의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연구한 논의는 윤영주 외(2016), 김미영 외(2018), 박종호(2021) 등이 있다.

윤영주 외(2016)는 베트남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 갈등, 다른 나라 유학생과 차별 문제로의 갈등, 선후배 관계에 따른 갈등, 경제적인 갈등,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문제 요소로 나타났다. 김미영 외(2018)는 낮선 교육 환경에서의 부적응, 수업 내용 및 수업 방식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낮선 교우 관계, 문화 및 베트남 무시 분위기 등을 유학생의 문제 요소로 지적하였으며, 박종호(2021)는 유학생이 경제적 문제로 한국 생활을 힘들어하고, 서열 문화와 존댓말 등의 언어문화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낮선 교우 관계, 선후배 문화, 언어문화 등이 베트남 유학생의 생활 적응에 문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영동지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1 연구 개괄

본 장에서는 지방대학 중 영동지역에 있는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설문의 구성은 Baker &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의 범주를 차용하였으나, 본 논의에서는 기존 범주와 다르게 ‘대학환경’ 적응은 설문 응답자가 거주하고 수학하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대학 및 지역환경’ 적응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참여자의 기본 정보 관련 항목과 각 적응의 4개 범주를 구성하였다. 문항은 각 적응 범주별 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이지만 설문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집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폐쇄형 설문 응답에 따른 개방형 질문¹²⁾도 설문에 포함하였다.

<표 1> 설문 내용¹³⁾

학업적 적응	1. 대학 선택 목적	정서적 적응	1. 정서적 우울감
	2. 학습 목표 설정 여부		2. 신체적 피로도
	3. 수업의 이해도		3. 규칙적인 생활 정도
	4. 규칙적 출결 여부		4. 학업 및 활동의 집중력
	5. 학업적 경험 및 만족도		5. 걱정의 요소
사회적 적응	1. 교우 관계 정도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	1. 대학 재학 유무
	2. 사제 관계 정도		2. 지역 대학의 만족도
	3. 관계 형성의 어려움		3. 지역의 만족도
	4.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		4. 전학 의사 유무
	5. 사회적 관계 만족도		5. 학업의 중단 고려 유무

아래의 <표 2>는 설문 응답자의 기본 인적 현황이다.

-
- 11) 구글 설문(<https://forms.gle/6HYWv9AB4sK1HYBo9>)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9일~6월 30일(자율 응답 표집)
 조사 대상 : 영동지방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어학 연수생 및 학위과정생 - A 대학교(38명), B대학교(11명), C대학교(9명), D대학교(5명), 중도탈락(12명), 총 75명.
- 12) 설문 응답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응답 결과를 받았다. 베트남어 응답은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취득한 베트남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번역을 진행하였다.
- 13) 진한 설문 항목은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이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인적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9	52	거주 기간	0~6개월	4	5.3
	여성	36	48		6개월~1년	20	26.7
	계	75	100		1~2년	38	50.7
					2~3년	3	4
			3년 이상		10	13.3	
비자 유형	D-4	49	65.4	한국어 능력	초급	27	36
	D-2	13	17.3		중급	22	29.3
	D-10	1	1.3		고급	3	4
	비자 만료	12	16		무급	23	30.7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비자 유형은 현재 어학연수생 신분인 D-4 비자의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¹⁴⁾ 다음으로는 학위과정 신분인 D-2, 구직 비자인 D-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비자 만료, 즉 현재 불법체류 신분인 유학생도 설문에 참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¹⁵⁾

거주 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았으며, 2~3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급 학습자가 적었다.

3.2 설문 결과 분석

1. 학업적 적응 관련 설문

학업적 적응은 유학생의 학업적 성취와 학습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을 평가한 항목이다.

- 14) D-4 비자인 어학연수생이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이유는 코로나(COVID-19) 이후 각 대학에서 어학연수생을 많이 유치하였고, 그 이유로 현재 어학연수생 신분인 유학생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15)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도 기존의 유학생과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대학 및 지역환경 적응 관련 설문’에서 기존의 설문과 다른 설문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유학생의 의견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는 신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응하지 않았다.

<표 3> 학업적 적응 관련 설문 1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¹⁶⁾							
Q1	유학원의 권유	빠른 입국 가능	학비 및 생활비	가족 또는 지인의 권유	본인의 선택	학교 지역에 대한 관심	기타
	43명(57.3%)	3명(4.0%)	7명(9.3%)	5명(6.7%)	13명(17.3%)	3명(4.0%)	1명(1.3%)

대학 선택의 이유는 유학원의 권유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지은 외(2022)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학생의 ‘중도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필자도 이 부분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유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 학교를 유학을 보내는 경우와 그에 따른 학습자의 심경과 이와 같은 상황이 학업 및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학 중인 학교를 본인이 선택한 경우도 17.3%의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적응이나 만족의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4> 학업적 적응 관련 설문 2

본인은 지금 수학과 있는 학교에서 전반적인 학업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Q5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7명(36.0%)	31명(41.3%)	15명(20.0%)	1명(1.3%)	1명(1.3%)

학업적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만족 이상의 비율이 77.3%로 학업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질문에서 보통 이상과 불만족 이하를 구분하여 개방형 질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와 문화체험 관련 응답을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¹⁷⁾ 응답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16) 이 문항은 학업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 대학 선택이 학습자가 제일 처음 결정해야 하는 학업적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동기 파악을 위해 이 문항을 설정하였다.
 - 17)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는 두 명에 그쳤다. 응답 내용은 비싼 생활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학업적 Q5] 개방형: 본인의 학교생활에서 학업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점을 서술하시오.

1. 교사 관련

①선생님들이 친절하다. ②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③처음에는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괜찮아졌다.

2. 문화체험 관련

①유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②새로운 문화를 많이 알게 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

개방형 응답에서 유의미한 응답은 교사와 문화체험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다수가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가장 큰 부분은 교사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유학생이 유학을 온 첫 순간부터 유학 생활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사는 유학생에게 있어 언어적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응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문화체험 관련 영역도 만족의 요소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의 이해와 더불어 문화적 이해의 요소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문화체험을 통해 학업 및 생활에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찾고, 더 나아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문화체험의 요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적응 관련 설문

사회적 적응은 유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개인적 적응을 평가하였다.

<표 5> 사회적 적응 관련 설문

Q3	본인은 대학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				
	매우 그렇다 25명(33.3%)	그렇다 11명(14.7%)	보통 28명(37.3%)	그렇지 않다 6명(8.0%)	전혀 그렇지 않다 5명(6.7%)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원만한 교우관계의 유지와 교우 간의 갈등을 서로 불만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지지적 교우 관계를 형성했는가의 여부는 학교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⁸⁾ 설문 결과 ‘보통’ 이상의 응답이 85.3%로 대부분의 학생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3. 정서적 적응 관련 설문

정서적 적응은 유학생이 대학 생활 도중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한 항목이다.

<표 6> 정서적 적응 관련 설문

Q1	본인은 최근에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매우 그렇다 19명(25.3%)	그렇다 11명(14.7%)	보통 23명(30.7%)	그렇지 않다 10명(13.3%)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16.0%)
Q5	본인은 최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24명(32.0%)	그렇다 13명(17.3%)	보통 20명(26.7%)	그렇지 않다 7명(9.3%)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14.7%)

정서적 적응 관련 문항에서는 영동 지역의 유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1번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감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응답자의 대부분이었고, 위와 같은 원인을 5번 ‘본인은 최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의 개방형 질문에서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금전적인 어려움, 학업과 노동의 양립, 학업에

18) 윤영주 외(2016).

19) 본 문항의 개방형 질문에서는 사회적 적응의 문제 요소를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대한 걱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진학 및 진로로 나타났다. 아래는 이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일부 응답이다.

* [정서적 Q5] 개방형: 요즘 본인은 어떤 걱정은 하고 있습니까?

1. 금전적인 어려움

①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다. ②돈이 없다.

2. 학업과 노동의 양립

①나는 공부와 아르바이트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②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유지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다.

3. 학업에 대한 걱정

①공부를 너무 못해서 토익 시험을 못 봤다. 한국어 기초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였다. ②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수업이 어렵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어렵다.

4. 의사소통의 어려움

①한국어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②한국어가 서투라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

5. 진학 및 진로

①저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②전공과 저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 ③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강릉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

6. 기타

①출입국 심사 준비가 힘들고 어렵고 비자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유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걱정을 5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범주로 금전적 어려움과 학업과 노동의 양립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범주는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범주로 학업에 대한 걱정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학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 또한 학습자가 유학 생활에서 정서적 우울감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소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모든 부분이 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4.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 관련 설문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에 대한 설문은 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에 느끼는 애착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²⁰⁾

<표 7>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 관련 설문²¹⁾

Q2	본인은 영동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는 것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23.7%)	11명(18.6%)	18명(30.5%)	12명(20.3%)	4명(6.8%)
Q3	본인은 유학을 온 지역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23.7%)	9명(15.3%)	18명(30.5%)	9명(15.3%)	9명(15.3%)

영동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점을 개방형 설문으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대학/지역적 Q2] 개방형: 본인이 수학하고 있는 영동지방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 점을 쓰세요.
- ①너무 바쁘지 않고 생활비(월세 등)가 저렴하다. ②수업료가 저렴해서 부담스럽지 않다. ③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편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
 - ④영동지역의 경우 생활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 삶은 대도시에 비해 바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딴 시골처럼 너무 암울하지도 않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 ⑤이곳의 생활은 도시처럼 붐비는 것이 아니며, 유학생에게 적절한 생활비만 필요하다.

개방형 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학생들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20) 이 문항에서는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신분인 베트남 유학생이 일부 포함되어 설문하였다. 그 결과 학비 및 생활비 부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을 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본 논의에서는 중도이탈 학생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21) 대학 및 지역환경 적응 관련 문항에서는 언어연수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은 12명의 학생은 제외하였다. <표 7>의 응답 인원은 63명이다.

한 생활비와 학비에 가장 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영동지방에 있는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설문 결과에서 각 범주별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적응 영역에서는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유학원의 권유로 학교를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필자는 유학생의 대학 선택이 본인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닌 유학원과 대학의 관계 또는 유학원의 실적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유학생이 원하는 지역이나 대학이 아닐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에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선택이 유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및 학업적 생활에서의 만족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한국어 교사’가 유학생에 주는 만족의 요소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적응 관련 범주에서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유학생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유학생은 의사소통능력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유학생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한국인과 관계를 맺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정서적 적응 관련 범주에서는 유학생이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정서적 불안 요인은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업적, 사회적, 대학 및 지역 환경 등 모든 범주의 요인들이 학습자의 심리적 불안 요소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 관련 영역에서 유학생은 본인이 수학과고 있는 지역과 대학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나타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학 및 지역에서 만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킬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또한 유학생이 체득한 문제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3 심층 인터뷰 분석

1. 심층 인터뷰 설계와 절차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는 ‘목적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목적표집’은 심층 인터뷰에서 소규모 표본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정하며,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²²⁾

인터뷰 대상자는 영동지방으로 유학을 온 베트남 출신 유학생 5명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한국 거주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으로 한국어 능력별, 유학 구분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설정하여 연구 참여자는 적지만 인터뷰 내용의 다양성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를 및 정보활용동의를 구했다.

<표 8> 심층 인터뷰 대상자 현황

구분	한국어 수준	나이(성별)	체류 기간	유학 구분
참여자1	6급	25(남)	6년	대학생
참여자2	5급	26(여)	6년	대학원생
참여자3	4급	20(여)	1년	어학연수생
참여자4	3급	20(남)	1년 4개월	어학연수생
참여자5	무급	20(남)	1년 4개월	어학연수생

심층 인터뷰 이전에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도록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 개인당 1시간 내외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녹취하였다.

22) 김미영 외(2018), 재구성

인터뷰 자료는 Giorgi(2004)의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영동지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의 대학 및 지역 생활의 적응과 부적응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주제와 범주에 따라 나누었다. 세 번째로 학습자가 구어적, 일상적 언어로 표현했던 내용을 학문적 언어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학문적 언어로 변형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일관성을 갖춘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쳤다. 추가로 설문 신뢰도를 위하여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구조한 설문 내용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단계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서는 분석의 신뢰성 및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확보하고자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²³⁾

2. 심층 인터뷰 결과

[학업 관련 인터뷰]

학업 관련 인터뷰는 유학원의 권유로 대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학업적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찾고, 그 외에 유학생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요소는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학생 본인의 학업적 적응을 위해 대학 및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학원 관련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23) 2인의 전문가는 현직 한국어 강사로, 한국어교육 전공의 학위 소지자(석사 1명, 박사 1명), 경력 10년 이상, 1급 자격 소지자로 구성하였다.

참여자1: 대부분 유학생이 유학을 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유학원에서든 공증, 학교 소개비, 수업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학비와 유학 보증금도 필요해요. (중략) 지방에 많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가는 학생보다 유학원을 통해 빨리 유학을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힘들어 한다. 베트남에 비해 높은 물가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미 유학을 오기 전부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본인의 의지나 계획보다는 빨리 유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지역이나 대학에 대한 정보 없이 유학을 온다는 것도 인터뷰에서 나타났다.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학생의 대학생활부적응에 큰 이유이고, 본인이 원해서 온 학교 및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학습자의 학업 동기나 의지가 다른 학생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 관련된 인터뷰이다.

참여자1: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외에도 외국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아플 때 병원은 어디에 가야 하는 지 모르고, 같이 갈 사람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같이 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을 구하는 방법, 주민 센터에서 주소지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어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하는데 수업을 안 할 때도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어 교사가 유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

화 및 생활 적응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3: 우리 학교에서는 시기마다 하는 토픽 특강이 있어요. 이 특강이 너무 좋았어요. 이 특강이 없었으면 토픽을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여자4: 많은 유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밥먹고.. 좀 자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다시 자요. 언어연수생이 오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룹 또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와서 가르쳐주고요.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교 정규 수업 외에 비교과 수업을 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어학연수기관에서는 오전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시간은 유학생의 자율적인 활동과 생활이 보장된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 모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은 유학생의 생활과 학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에 다소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계발을 원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과 같이 오후 시간 유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5: 문화체험이 한국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어요. 더 많은 체험을 하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문화체험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체험은 교실 밖 실제 한국 사회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현장에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참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다.²⁴⁾ 이 인터뷰 참여자 외에

24) 최유미 외(2024)

도 대부분 학생이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생활 및 문화, 역사 등을 알 수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 및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1: 학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는 전공 수업 이해 부족과 교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답하였다.

참여자1: 언어연수생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입학했을 때 제가 진학한 학과는 외국인인 저 혼자였어요. 혼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전공 수업이 이해가 안 되고 과제를 한국 친구들과 했을 때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마음을 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 내 어학연수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대학 입학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입학한 학생이라도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부적응 요소 또한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하는 어려움의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 교재에서 나타난 지역 어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이다.

참여자2: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많이 몰랐어요. 교재의 듣기에서 서울역에서 청계천 가는 방법 듣기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청계천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박정근(2021)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수도권 대학기관이나 사설 출판사에서 제작한 한국어 통합교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재는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였고, 학습자에게 지역적 문화가 반영된, 학습자 생활 교육 환경을 고려한 지역문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역의 요소를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문화체험의 충족도 학업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을 고려했을 때, 필자는 교재와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교재 및 수업의 재구성이나 수업과의 연계성을 띤 문화체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적응]

다음은 유학생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사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유학생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2: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택시 예약하는 방법을 몰라서 길에서 택시가 보이면 타야 했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베트남 사람이 싫다고 화를 냈어요. 그때 한국말을 못해서 자세히 상황을 못 물어봤고 너무 속상했어요.

참여자3: 가끔씩 의사소통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데 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학업적 적응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업적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서도 중요한 문제 요소이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자2의 응답은 한국인의 편견으로 인한 문제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이다.

참여자4: 만나는 한국 사람은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이모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5: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언어 격차가 있어서 불편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과 많이 알고 싶어요.

베트남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람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사람과 교류하고 싶지만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서적 적응]

다음은 유학생들이 느끼는 우울함과 불안감, 피로감의 원인을 찾고,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노동의 양립, 학업에 대한 걱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진학 및 진로 등이 정서적 적응의 문제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2: 한국은 살기 좋지만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돈을 힘들게 벌었지만 거의 다 써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사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참여자3: 집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끔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 요소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2는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유학생에게는 귀국을 고려할 정도의 큰 압박감을 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3 또한 경제적 문제와 학업의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두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유학생에게 적응의 심각한 문제 요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전공 선택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서적인 요인이라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참여자5: 이제 곧 전공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토픽이 없어서 토픽을 합격해야 해요. 답답해요.

현재 D-4(어학연수)비자는 최대 연장 기간이 2년이다. 이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은 2년 안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의 대학 입학 조건은 소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을 필요로 한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5는 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전공 선택 또한 유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문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지역 환경 적응]

유학생의 대학 및 현재 환경에서의 적응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학 및 지역 생활에서 유학생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결과 대학 및 지역에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를 꼽았다.

참여자4: 집세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장점이예요. 하지만 백화점이 없어서 쇼핑하기가 불편해요.

참여자5: 다른 수도권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공부하는 어학당에 비해 학비도 저렴해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상점이 적으니까 물건을 쉽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끔 불편함도 느껴요.

생활비와 학비 절감의 장점은 유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상권은 아쉬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은 만족한다는 의견이다.

참여자3: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 와보니 서울보다 강릉이 좋아요. 날씨, 사람, 분위기 모두 강릉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용한 곳이 좋아요. 서울은 좀 붐비고 시끄러워요.

참여자2: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소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좋아요.

참여자1: 삶이 편하고 교통도 편한 것이 좋아요. 특히 바다가 가깝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이 장점이에요. 음식도 맛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모두 수도권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생활 환경과 자연이 영동 지역의 장점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점은 소도시 출신의 베트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유학생 선발에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 및 지역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불만을 응답한 인터뷰이다.

참여자1: 제 학과에는 IP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장 실습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했지만 외국인이라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취업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서 억울했어요. (중략) 여기서 취직하고 계속 살고 싶은데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직 관련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강릉에 외국인 지원센터나 외국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은 지역의 생활과 삶은 만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하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내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한국 생활에 능숙한 양질의 근로자를 어렵게 양산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연구자로서도 매우 난감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을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1: 강릉은 외국인제도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 각은 강릉에서 몇 년 이상 살았거나, 강릉 지역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이것을 인증하는 자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역행사,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한 사람은 비자 연장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1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원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많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의 연장과 같은 혜택을 요청하는 아이디어도 제공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의에서는 영동지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현재와 문제 요소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을 개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적 적응 영역에서는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노동의 필수성과 그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재의 내용(장소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특강이나 문화체험, 수업 외 비교과 활동 등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적 어려움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는 학업적 적응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응의 부정적 요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정서적 적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습자의 적

응에 문제 요소로 나타났다. 또, 진학과 진로, 취업의 불확실성이 적응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및 지역 환경 적응에서는 설문 참여자와 인터뷰 참여자 모두 전반적으로 지역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만족의 이유는 비교적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가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의 요소가 되었다. 그 외에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생활, 깨끗한 자연환경 등이 지역생활에서 만족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생활 편의성을 지역 생활의 불만족 요소라고 답했다. 그리고 영동지역의 생활은 만족스럽고 정착의 의지가 있지만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방으로 오는 유학생의 보다 나은 대학 생활과 나아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함께 상생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대학은 유학생들이 금전적 문제를 해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일자리를 마련하여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유학생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의 생활과 작은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스터디 그룹이나 특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업적 목표를 이루어 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습자가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유학생들의 상담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유학생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상담을 실시한다면 보다 학습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와의 적극적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학생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회 구성원과 대학에 있는 내국인의 다문화 관련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시대 속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을 위한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국인이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대한다면 서로의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영동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전반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문제 요소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이는 앞으로 지방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 및 한국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의 토대로서 가치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Vietnamese Students to University Life in Yeongdong Region

Park, Jeongkeun·Go, Joohwa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and problematic factors of Vietnames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he Yeongdong area, and to search for improvements in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for their successful study abroad life. It is time for various efforts to prevent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to promote a stable life.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Yeongdong area's adaptation to college and local life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main problems were economic difficulties, linguistic barriers, and difficulties in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aris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International students want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xpanding economic support, revitalizing comparison and programs, and strengthening counseling support. Although the satisfaction level of local life was high, the lack of convenience of living and difficulty in employment were problems.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Koreans of multiculturalism.

Key words : Yeongdong region, Vietnamese studen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university and regional adaptation.

[참고문헌]

■ 단행본

- 민현식·조향록·유석훈·최은규 외, 『한국어교육론 3』, 한국문화사, 2005.
- 원진숙·김정원·이인재·남호협·박상철·김광수·류재만·장은영, 『학교 다문화교육론』,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8.
- 장인실·모경환·김윤주·박철희·임은미·조현희·함승환, 『다문화교육』, 학지사, 2022.
- Giorgi, A.,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y research], (신경립,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2004(원전 1994 출판).

■ 논문 및 기타 자료

- 교육부, 「교육화 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2024. 2. 8. 보도자료\)](https://www.moe.go.kr/(2024. 2. 8. 보도자료)).
- 구지은·박형준,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와 관한 질적 연구:부산지역 K대학교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12권. 2022, 1-29면.
- 김귀성·황지인,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學生生活研究』 29호, 2009, 1-25면.
- 김도혜, 「한국 지방 대학 유학생의 노동 경험 연구:A 대학 베트남,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14권 1호, 2021, 5-35면.
- 김미영·이유아·송연주,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과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24권 1호, 2018, 481-503면.
-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학생 현황(대학)」, <https://academyinfo.go.kr> (검색일 : 2024.05.25).
- 레티후엔짱,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6.
- 문세진·조완성·김민, 「한국유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지방대학 몽골 유학생의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연구』 53호, 2020, 33-55면.
- 문정현·심혜령, 「유학생을 위한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 설계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2권 1호, 2017, 75-104면.
- 박은경,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1권 2호, 2011, 113-139면.
- 박정근,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2021.

- 박종호, 「베트남 한국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3권 2호, 2021, 37-49면.
-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24년 3월 말 기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 (검색일 : 2024.06.20).
- 안진우·이채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28권 3호, 2017, 157-177면.
- 윤영주·장소영, 「베트남 유학생의 교우관계 갈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21년 7권 2호, 2016, 399-415면.
- 윤지원·김상욱, 「유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32호, 2017, 26-56면.
- 이민경,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18권 2호, 2012, 177-201면.
- Baker, R. 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984, 179-189면.